

박지원 전 국정원장 출마여부 최대 관심사

목포

목포는 전남 총선에서 항상 주목받는 선거구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후보가 목포시장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당 지지율이 다른 정당에 비해 월등하고 민주당을 태동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곳인 만큼 '전남 정치 1번지'로 꼽혀 민주당 후보를 발걸음이 어느 곳보다 켜 곳이기도 하다.

현역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정활동이나 지역구 관리 등에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목포지역위원회 입당원서 유출, 전 보좌진 문제 등으로 당 내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선거 이후 조직을 추스리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지방선거 때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목포시장을 제외하면 목포시의회 22명 중 17명, 도의원 5명을 민주당 소속으로 입성시킨 만큼 당 조직력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 최대 현안 전남의 국립 의대 설립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도 지역 민심을 긍정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시각이다.

경쟁자로 올해 초까지 오르내렸던 김중식 전 목포시장과 손혜원 전 의원은 출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행보가 관심 거리다. 민생당으로 출마했던 지난 총선과 달리,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 전 원장의 무게감 때문에 향후 그의 정치적 선택이 민주당 경선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아직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다. 박 전 원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실 정치 복구에 대한 최



김원이 박지원 배중호



윤선웅 이운석

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목포는 물론 해남·완도·진도 등에서 출마를 원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고민이 깊다"고 밝히,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섯번 째로 목포지역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배중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및 세한대 교수는 그동안 언론 패널 등으로 꾸준히 지역 내 인지도를 쌓아온데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경선을 준비중이다. 이운석 전 의원 등도 지역구를 옮겨 민주당 경선을 준비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선웅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 후보는 아직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현의원 리턴매치...선거구 조정이 변수

여수갑

여수갑 지역구는 내년 총선 관전 포인트가 많은 선거구다.

우선, 논의중인 선거구 조정 문제가 변수다. 기존의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여수갑은 지난 1월 현재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인근 선거구와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될 경우 각 선거구 입지자들이 양분되면서 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후보 간 인연도 불만하다. 재선에 도전하는 주철현 현 의원에 맞서 공천 경쟁을 벌일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은 이용주 전 의원.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두 사람은 본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은 바 있어 이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 이후 치러지는 공천 경쟁은 사실상의 리턴 매치로 볼 만 하다. 지난 총선 당시 주 의원은 민주당 소속 도전자로, 이 전 의원은 무소속 현역 의원으로 경쟁을 벌여 주 의원이 급배지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선거구 확정 여부 등을 지켜보며 출마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 뿐 아니라 여수시장, 민주당 여수지역위원장 활동 등을 통해 쌓은 조직 기반 등으로 재선을 위한 경쟁력은 갖췄다는 평가다. 다만, 최근 전남지역 국립 의대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전남대병원 여수분원'을 주장하는 등 소지역주의 행태와 중앙 정치권의 흐릿한 존재감 등이 맞물리면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어 눈여겨 볼 부분이다.

강유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도 오는 5월 퇴직한 뒤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이사장은 여수



주철현 강유주 김경호



고영호 이용주

환경운동연합 등 10년이 넘는 시민단체 활동과 재선 시의원으로서의 시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정통한 인물임을 내세워 당심 잡기에 뛰어들겠다는 전략이다. "(출마 여부) 속고중"이라고 밝힌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도 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설 후보군에 꼽힌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지방분권위원회 미디어위원장을 맡는 가 하면, 최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 방안을 결정하는 미래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역 현안을 쟁점 경험 등을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힘에서는 고영호 여수갑 당협위원장이 "출마한다"며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본선 '치열한 3파전'

여수을

여수을 선거구도 여수갑과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선거구 조정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여수갑과 을 선거구가 합쳐질 경우 출마 예정자 등 선거 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입지자들도 이에 따라 선거구 확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외의 후보군은 아직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민주당 공천 경쟁이 사실상의 본선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 선거구에서는 현역인 김희재 의원과 권오봉 전 여수시장,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이 민주당 공천장을 놓고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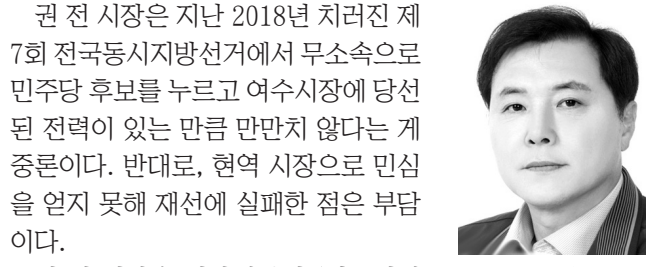
김 의원은 이렇다할 물의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 무난한 지역구 활동 등으로 재선이 무난할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다만, 전남지역 국립 의대 유치 과정에서 소지역주의로 비쳐질 수 있는 주장을 내놓는다면, 최근에도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등 전남 동부권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립 의대 유치를 위한 단일화에 앞장서기는 커녕, 지역 간 경쟁·갈등 구도를 강화시키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청사, 박람회장 사후 활용 등의 여수 현안을 놓고 인근 지역구의 원인 주철현 의원과 빛의 갈등 관계를 바라보는 주민 정서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도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눈여겨볼 대목이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의 경쟁력도 민주당 공천 경쟁에서 관전 포인트다.



김희재 권오봉 임동하



조계원

권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여수시장에 당선된 전력에 있는 만큼 만만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반대로, 현역 시장으로 민심을 얻지 못해 재선에 실패한 점은 부담이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여수미래포럼'을 출범,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 민심을 다지는 행보를 펼치고 있다. 조 전 정책수석은 20대 총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로 나서는 등 꾸준히 지역 정치권에 얼굴을 드러내왔지만 지역 내 인지도가 낮은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이외 후보군에서 뚜렷한 출마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역 정치권 반응이다.

다만, 국민의 힘에서는 임동하 전 전남도당위원장이 "출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경선도 본선대결도...가장 치열한 선거구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는 전남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구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시장, 여당 전 대표, 여당 최고위원 후보 등 경쟁 후보들이 밀집된 출마 준비를 갖췄다는 게 지역 정치권 분석이다.

최고의 격전지이면서 모든 선거 때마다 '충격적' 선택으로 정치권을 긴장시키는 대표적인 지역인 점도 관전 포인트다.

현역인 소병철 의원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한 경선 관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는 점서 현역 프리미엄에도 불구하고, 재선 전략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온다. 당내 입지가 공고하지 않은 틈새를 파고들면 '해불만하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입지자들도 물리는 형국이다. 소 의원의 경쟁을 뚫고 민주당 공천장을 받게 되면 나선 후보들로는 김문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특보, 서갑원 전 의원, 허석 전 순천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특보는 지난 10월 순천으로 전임되고 뒤 마을을 돌면서 주민들 속으로 파고드는 행보를 펼치고 있다. 서 전 의원은 친노 핵심 인사로, 순천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인지도를 내세워 조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서 전 의원은 노무현대통령 비서로 정치에 입문, 참여정부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정부비서관을 역임했으며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허 전 시장은 10년 넘게 민주당 후보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던 순천시장에 당선된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는 정치인으로 인지도를 쌓은 게 강점.

민주당 후보들과 본선을 치를 후보들도 경쟁한다. 출마 준비를 갖춘 이정현 전 의원은 보수 정당 후보로 순천에서 두 차례 당선된데다, 당 대표 등을 지내며 지역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춰



소병철 김문수 서갑원



이정현 천하람 허석

만만치 않다는 평이다. 이 전 의원도 "호남 출마는 당연하다"면서도 지역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 힘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지난 선거 때부터 지역민들과 교감을 넓혀온데다, 최근 방송 패널과 최고위원 출마 등으로 급상승한 인지도로 지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의원과 천 위원장 모두 국립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향인 곡성을 비롯, 구례를 돌며 무뎀이 유세를 펼쳤던 이 전 의원이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로 옮겨 출마하는 방안도 점쳐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유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 내 분묘개장공고대상인 연교리 분묘 관리인(공고)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구역 내 신고가 없을 시 무효로 보고,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장원군 장원읍 임원리 100
2. 분묘의 수: 17기
3. 개장 사유:
 - 방앗간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
 - 토지이용 목적 변경 및 안전행위
4. 개장 방법:
 - 유언장: 연교리와 협의
 - 유언장: 관공리 장사주부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임의개장료: 100,000원
6. 공고기간: 2023년 3월 10일~ 2023년 6월 10일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공고인: 배 창 오 (010-3114-2514)
 - 신고처: 장원읍행정복지센터 (010-310-1740)
 - 연락처: 장원읍행정복지센터 (010-310-1740)
 - 전남 장원군 장원읍 중앙로 130-2
8. 신고서 기재사항: 연교리마을을 담당하는 측보, 제작방법, 가형, 사형, 사형인 등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공고 후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에 포함됩니다.

2023년 4월 20일
위공고인 토지소유주 배 창 오 (010-3114-2514)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04월 15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됨에 따라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20일
주식회사 흥인중합건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8
청산인 정선익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3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20일
주식회사 하하사
광주광역시 동구 계봉로 50 (남동)
청산인 최은석

삼익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공고

1. 창립총회 일시: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창립총회 장소: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용산길 65, 1층
3. 조합원의 자격: 민법 소정의 권리능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및 국내법인
4.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
 - 제1호 의안 정관제정에 관한 건
 - 제2호 의안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에 대한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임원(이사장, 이사 및 감사) 선출의 건
 - 제4호 의안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기타사항에 대한 결정의 건
5. 유의사항:
 - ① 창립총회에 참가하시려는 분은 창립총회 회일전까지 삼익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창립총회 장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② 창립총회에 참가하시려는 분은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71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송 266-1960	• 북광주 525-378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951-1833	• 북 성 673-6836	• 송 산 675-6605
	• 진 명 671-7276			
서 구	• 광 천 982-5788	• 상 부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명 376-6511	• 풍 말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신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